

지구의 해

2007 – 2009

지금 인도양을 중심으로 쓰나미 경보 체계를 갖추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2004년 12월 26일의 같은 재해로 이미 23만 명이 죽고 난 다음입니다. 지구과학자들은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많은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는 자신들의 지식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의 지구에 대한 이해를 보다 적절히 사용해야 됨을 절실히 깨닫기 전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헛되이 죽어야만 하는 걸까요?

‘지구의 해’는 무엇인가?

‘지구의 해’ 행사의 목표는 전 세계 40만 지구 과학자가 그 동안 축적한 지식을 이 사회가 좀 더 넓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제목 ‘사회를 위한 지구과학’에 나타난 것처럼 전세계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며, 풍요한 사회를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구의 해 행사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계속되며, 이 삼년 중 가운데 년도(2008년)은 유엔 총회가 UN의 해로 선언하였습니다. UN은 이 년도를 지구물질의 현명한(지속가능한) 이용을 진흥하고 지구 생명체에 대한 위협을 줄이기 위한 개선된 계획과 관리를 격려하는 등의 지속적인 개발 노력에 헌신하는 해로 삼은 것입니다.

‘지구의 해’는 누가 이끌어 가는가?

지구의 해는 UNESCO와 국제지구과학연맹(IUGS)가 공동으로 발의하여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호응하여 12개의 창립 단체, 26개의 동반 기관, 그리고 세계 각국의 지구과학계를 대표하는 수많은 국제 기관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또한 191개 UN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31개 나라에 지구의 해 국가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개국 이상에서 비슷한 위원회를 구성하러 준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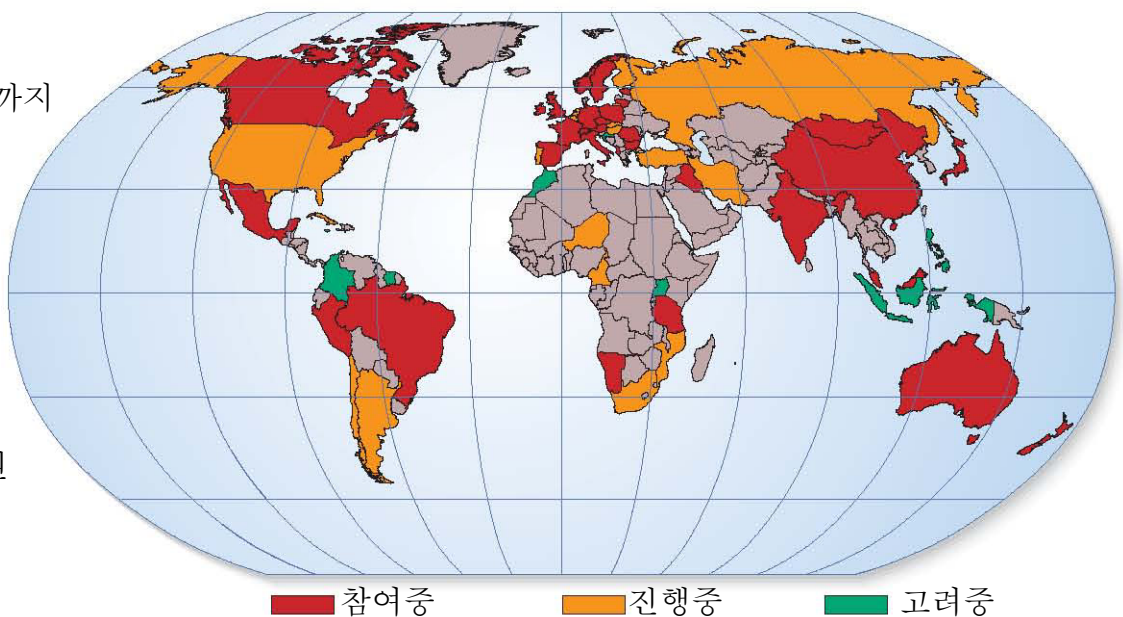
어떤 일을 하는가?

지구의 해 주요 활동으로는 자체 기획한 과학(Science) 및 대중화(Outreach)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것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의 각종 행사 재원은 전세계에 걸친 기업들의 기부금과 각종 재단 및 정부 단체의 기여금으로 충당합니다. 두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의견 청취 또는 버텀업(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과학 프로그램은 건강, 기후, 지하수, 해양, 토양, 심부 지구, 대도시, 재해, 자원, 그리고 생명과 같은 10개의 광범위하고 사회성이 있는 다학문적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각각 주제에 대해 안내 책자를 인쇄 하였으며, 이는 지구의 해웹사이트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각각의 주제 내 특정 문제들에 대한 의사표시(EOI)를 제출하도록 초청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공개된 디지털 지질도 작성 프로그램에 3차원을 더하는 ‘Transparent Earth’ 이행을 위한 표준 규격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 행사 일환으로 특별한 광역 지구과학 지도가 발행될 것이며, 행사 기간 중 국내외 과학 회의에 지구가 두드러진 주제가 될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많은 젊은 지구과학도에게 학업 및 연구 장학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지구 상에서 가장 대단한 지구과학 불거리가 제공됩니다

대중화 프로그램은 다수의 대단위 국가별 활동과 그리고 몇 개의 국제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06년 9월에 각 국가위원회가 마련한 대중화 프로젝트와 사업 중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07년 1월: 각각 지구역사 백만년을 나타내는 생분해 풍선 4,567개 날리기. 인도 남부 및 영국 런던
- 2008년 3월: 세계 광업 대표자 포럼. 캐나다, 토론토
- 미국 워싱턴을 시작으로 스미소니언 세계 토양 순회 전시
- 대중을 위한 지구과학 전시회. 세계 각국
- 새로운 지구과학 박물관. 브라질
- 순회 강연 및 답사. 유럽
- 지질과 포도주 답사. 호주
- 지속적 광물 탐사에 관한 DVD 제작
- 지구과학에 대한 TV 다큐물 제작
- 국제도시지구과학자콘소시움 발족
- 지하도시 전문 지구과학 연구소 건립을 위한 첫 걸음
- 지구의 해 우표 발행
- 지구에 초점을 맞춘 특별 책, 잡지 및 논문 출판
- '지구유산'에 관한 새 학술지 발행
- 저널리스트와 교사를 위한 교육 과정 개설
- 지질공원 신설. 세계 각국
- 2008년: 지질여행 학술회의. 호주
- 2008년: 3회 UNSESCO 지질공원 회의. 독일
- 지질박물관에서 비엔나 신년 음악회 개최
- 전시회를 여는 18량 지구열차. 인도
- 지구의 해 로고를 그린 배, 기차 운행
- 심포니: 지구
- 지구-시 출판
- 지구 관련 핸드폰 벨소리
- 지구-작품전



UN의 지구의 해는 파리의 UNESCO 본부에서 공식 선언될 것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각 나라의 정치, 과학, 산업 지도자들이 모여 자신들이 겪고 있는 지구 관련 사회 문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정상 회담을 열 것입니다. 또한, 이 해결책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과 토론도 할 것입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이 정삼회담은 2008년 각 대륙에서 권역별 유사 회담의 좋은 모범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 대중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치뤄지는 국제행사에는 고유 지질정보 및 지구과학 회의, 2007-2009년의 다양한 지구과학 회의, 그리고 최초의 젊은 지구과학자 회의 등이 포함됩니다.

어떻게 기여하고 성원할 수 있나?

지구의 해는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로, 이를 통해 우리지구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풍요롭기 위해서 지구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시급히 필요한가를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목표를 보완하는 방안이나,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현재의 방안들을 지원함으로써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먼저 자신의 지구의 해 국가위원회와 접촉해 보십시오.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 접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국가위원회가 아직 없다면, 자신이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만일 이 제안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싶으시면, 사무국에 연락하십시오.

만일 귀하가 산업이나 재단의 대표라면, 이 제안의 보완이나 재정지원 방안을 알려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업이나 국가는 많은 과학자들에 의한 지구 물질의 지속적인 추출과 생산이 필요하다는 걸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일 이러한 지원이 없었다면 인간 사회의 진보가 심각하게 더뎠을 것입니다. 2002년 독일에서 열린 지구과학 행사에서 이러한 종류의 이벤트가 해당 전문지식의 환기를 크게 자극하고, 지구 물질의 지속적 사용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한편으로는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상처받기 쉬운 후속세대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라는 것이 잘 나타났습니다.

만일 귀하가 과학자라면, 제시된 10개 분야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의견서를 내어 연구 계획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해당 연도의 진행 중인 또는 진행 예정인 과제와 연계함으로써 기여할 수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사무국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가 이 제안 내용을 현재 진행 중이거나 새로운 지속적 개발, 광산, 에너지, 과학기술, 국제 환경, 용지 사용 계획 또는 교육 정책에 반영시키려는 정부 관계자라면, 사무국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Year of Planet Earth Inc

Secretariat IYPE

NGU

N-7491 Trondheim

Norway

T +47 73 90 40 40

F +47 73 50 22 30

E iype.secretariat@ngu.no

I www.yearofplanetearth.org

한국 지구의 해 사무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813호
T +82 2 3453 1550
F +82 2 3453 1854
E office@gskorea.or.kr
I www.gskorea.or.kr

